

18~19세기 동·서양 의복에 나타난 여민의 유형과 조형성

장 현 주* · 장 정 아** · 이 주 영***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밀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강사***

The Types and Formation of the Pieces for Fastening the Clothing in the Western and Oriental World from 18c to 19c

Hyun-Joo Jang* · Jeong-Ah Jang** · Joo-Young Lee***

P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Mirya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ivision of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4. 12. 3 토교)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types and formation of the pieces for fastening the clothing in the western and oriental world from 18c to 19c.

The pieces for fastening the clothing, depending on their formation, are classified as the ribbon type, the belt type, the button type, and the compound type. The ribbon type indicates fastening the clothing with the strips attached to the clothes. It is divided into the symmetry type and the asymmetry type by the looks of the ribbon after it is tied. The belt type means fastening the clothing with a string or a belt, separated from the clothes. It is divided into the string type and the belt type. The button type is to fasten the clothing with buttons, button holes, and hooks. It is divided into the basic type, the wrapping type, and the knot type. The compound type is a mixture of two or three types out of the ribbon type, the belt type, and the button type.

The pieces for fastening the clothing has aesthetic features as well as their functional characteristics. It has beautiful features like the harmonious beauty of Yin and Yen shown in the asymmetrical types, the beauty of spell wishing for health, long-life, wealth, wisdom, and so on, the beauty of decency showing the intention of refraining from exposing their body in public, the beauty of eroticism emphasizing the beauty of the human body, and the beauty of representing their social class, authority, affiliation, and so on.

Key words: ribbon type(리본형), belt type(벨트형), button type(버튼형), compound type(혼합형),
beautiful features(심미성)

I. 서론

의복에서 여밈은 단순히 옷을 여미주고 트임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 외에 다양한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동양의복에서는 의복의 색상과 강렬하게 대조되는 색상의 고름과 대를 사용하였고, 서양의복에서는 필요 이상의 리본과 단추를 사용하여 장식적인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능성과 장식성 외에 의복의 여밈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동양의복의 대표적인 여밈형태인 고름은 비대칭 길이를 통해 음양사상을 표현했으며, 가늘게 끈 실타래로 된 고름은 무병장수, 부귀총명 등을 염원한 주술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은폐와 노출을 통한 정숙성과 성적매력성도 표현하였으며, 동양의 대와 서양의 베튼은 신분이나 권력 등을 표시하는 기능도 가진다.

의복의 여밈에 관해서는 서양의복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여밈에 대한 연구¹⁾가 있지만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동·서양의복의 여밈을 비교하며 여밈의 유형과 조형성을 분석한 연구는 실제로 드문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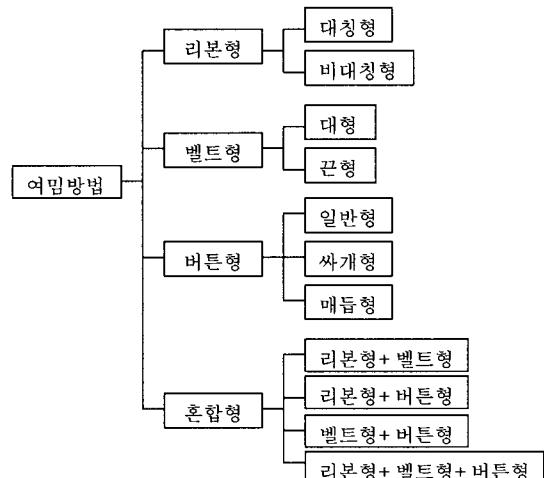
동양과 서양은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이라는 서로 상반된 생활방식으로 인해 의복의 형태 또한 평면적인 옷과 입체적인 옷, 즉 인체에 편안하게 걸치는 옷과 인체를 강조하여 조이는 옷으로 각각 형성되었다. 동양의복은 대부분 옷 자체의 여유분을 직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옷에서의 압박감이 없어 넉넉하고 편안하게 걸치는 형태가 되었으며 단지 옷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름 혹은 띠로 홀려내리지 않을 정도로 여미는 방법이 발달하였다. 이에 반해 서양의복은 인체에 밀착 되도록 조여 입었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에서 허리까지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인체에 꼭 맞는 여밈방법인 끈과 베튼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런 동·서양의복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8~19세기 동·서양의복에 나타난 여밈의 유형은 몇 가지 유사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서양의복 관련 자료²⁾를 바탕으로 18~19세기 동·서양의복에 사용

된 여밈의 유형을 분류하고, 여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외재미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재미를 살펴보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의 발상에 도움이 되어 현대 의상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여밈의 유형

18~19세기 동·서양의복에 보이는 여밈은 형태에 따라 크게 리본형, 벨트형, 베튼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본형은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 끈으로써 옷을 여미는 유형으로 리본의 모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벨트형은 의복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끈과 대로 옷을 여미는 유형으로 벨트의 모양에 따라 대형, 끈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베튼형은 기본적인 단추와 단추 구멍 혹은 고리로 옷을 여미는 유형으로 베튼의 모양에 따라 일반형, 싸개형, 매듭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혼합형은 리본형, 벨트형, 베튼형 등이 서로 조합되어 사용되는 유형이다. <그림 1>은 여밈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여밈 형태에 따른 유형분류

1. 리본형

리본형은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 끈으로써 옷을

여미는 유형이며 의복을 벗어도 여밈수단은 의복에 부착된 형태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의복을 여미기 위해 매듭을 끓은 후의 모양이 좌우 대칭이 되는 대칭형과 좌우대칭이 되지 않는 비대칭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양의복에는 대칭형과 비대칭형이 모두 보이는 데 비대칭형 즉 고름형태의 비중이 높으며 서양의복에는 주로 대칭형, 즉 전형적인 리본형태만 나타나고 있어 특징적이다.

동양의복에서 고름의 등장은 옷 길이의 단소화, 대의 소멸 등 의복의 형태변화와 관련 된다³⁾. 즉 고름의 유래는 고려시대 원복식의 영향으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대가 사라지고 고름이 생겨 났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명칭은 16세기 초 편찬된 『훈몽자회』에 고름이 '고홈'과 '꼴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⁴⁾.

그러나 옷길이가 비교적 긴 포 형태의 의복에도 매듭단추나 끈고름 등이 있으므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름이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⁵⁾.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의복으로 추정되는 반비, 저고리류에 고름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⁶⁾ 통일신라시대 내지 고려시대부터 고름은 우리나라의복의 여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름의 등장이 옷길이의 단소화의 결과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8~19세기 전반에 걸쳐 서양의복에 사용된 대칭형의 리본은 여밈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프릴,

레이스, 꽃 등과 함께 장식요소로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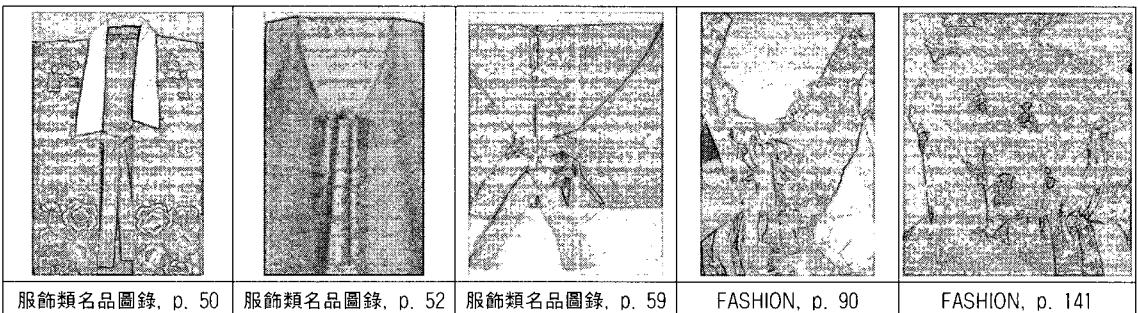
1) 대칭형

대칭형태의 리본은 서양의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서양의복에 사용된 리본은 옷을 여미기 위한 수단 외에도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리본 직기가 자동화됨으로써 리본은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성행하여 의상의 목둘레, 가슴, 스커트 등에 지나칠 정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었으며⁷⁾, 주로 다른 여밈수단 위에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단지 여밈의 목적으로만 사용된 형태는 주로 앞트임 부분에 사용된 리본과 목둘레선이 많이 파이고 허리선이 하이웨이스트에 위치하는 엠파이어스타일의 드레스에서 가슴의 불륨을 네크라인과 허리에서 줄라매어 여미는 리본 등이 있다.

동양의 의복 중에서는 전복, 배자, 원삼, 활옷 등 주로 좌우의 깃 모양이 대칭되는 대금형 의복에서 좌우 대칭형태의 고름을 볼 수 있다. 즉 좌우가 대칭되는 의복에 좌우대칭형의 여밈수단을 부착하여 의복의 형태와 여밈방법이 서로 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동·서양의복에 나타난 리본형 여밈 중 대칭형의 예이다.

2) 비대칭형

비대칭형은 주로 동양의복에서 볼 수 있으며 서



〈그림 2〉 리본형 여밈 중 대칭형

양의복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유형이다.

우리나라 의복 중 좌우의 깃 모양이 비대칭형인 의복은 대부분 재단할 때 미리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의 길이에 차이를 두어 재단하고 옷깃을 여밀 때에는 긴 고름으로 코를 만들어 짧은 고름과 매듭을 지어서 그 길이가 서로 비슷하게 하였다. 이것은 재단할 때 이미 긴 고름과 짧은 고름으로 길이에 차이가 있으며 착장했을 때도 코가 한개만 생겨서 비대칭형이 된다. 즉 동양에서는 좌우의 깃 모양이 비대칭되는 의복은 여밈형태 또한 비대칭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갓 태어난 아기의 배냇저고리는 대개 청색과 백색의 무명실을 가늘게 꼬거나 실타래를 자연스럽게 고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기가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만들어 진 것으로 긴 고름은 아기의 몸을 한번 감쌀 정도의 길이로 길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은 리본형 여밈 중 비대칭형의 예이다.

2. 벨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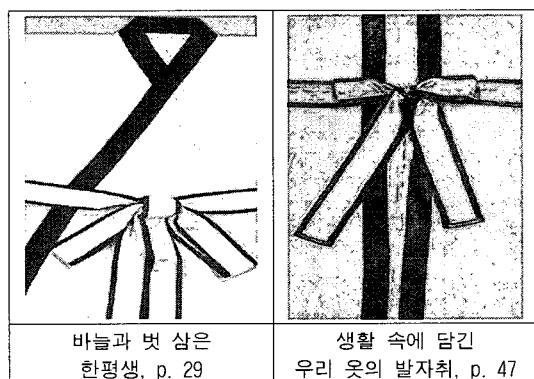
벨트형은 의복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끈과 대로써 의복을 여미고 의복을 벗으면 끈과 대가 의복과 다시 분리되는 유형이며 동·서양의복에서 다양하게 발달했다.

1) 대형

대형은 동양의복 중 왕이나 왕세자의 면복, 원유

관포, 왕비의 적의, 조선의 관복, 심의 등 비교적 의례적인 의복에 많이 사용되었다. 대는 끈에 비해서 폭이 비교적 넓어서 장식성 또한 강하다. 그러나 18~19세기 동양의복에서는 대의 여미는 기능을 고름이 대신하게 되면서 거의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세조대만 있을 뿐이므로⁸⁾ 실제로 대만을 사용해서 옷을 여민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여밈수단과 병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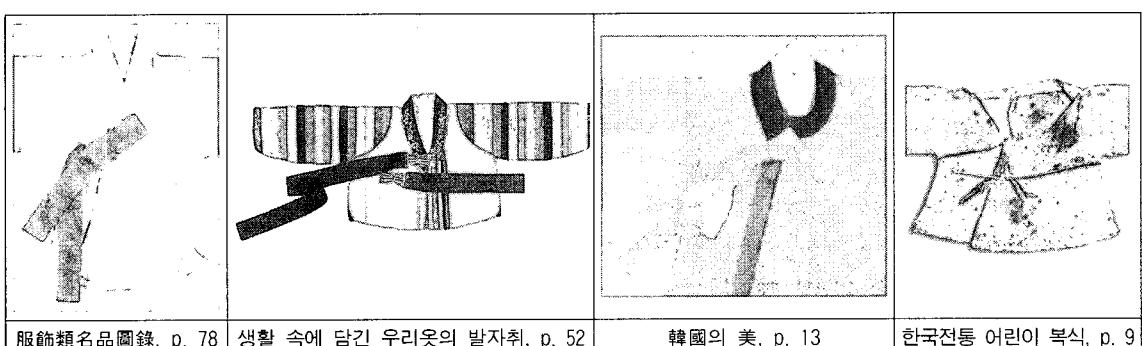
<그림 4>는 벨트형 여밈 중 대형의 예이다. 유학자들의 대표적인 의복인 심의는 대를 사용하여 옷깃을 여민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4> 벨트형 여밈 중 대형

2) 끈형

끈형은 끈으로 잡아매는 것으로 서양의복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옷감으로 만든 끈과 실로 꼬아서 만든 끈 등이 있다.



<그림 3> 리본형 여밈 중 비대칭형

서양에서는 로마네스크시대부터 튜닉형의 원피스 스타일을 바디스에 꼭 맞도록 하기 위해 의복의 뒷 중심선에 등트임을 하거나 또는 양옆 겨드랑이에서 옆트임을 하여 끈으로 엮어 인체를 조이면서 발달하였다⁹⁾. 즉 의복이 인체 밀착형인 입체 구성으로 변화되면서 뒤 또는 옆이나 앞을 트고 주로 X자나 사선일자형으로 조여서 여미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림 5). 특히 18세기 서양 여성들은 연약한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코르셋을 사용했는데, 가는 허리와 풍부한 앞가슴을 돌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된 코르셋은 끈으로 조여서 여민 것이 많았고, 이는 여성의 가슴에서 허리까지 곡선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데 끈 여밈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5>는 벨트형 여밈 중 끈형의 예이다. 이는 18세기 의상 중 자켓, 코르셋, 드레스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3. 버튼형

버튼형은 단추와 단추 구멍 혹은 고리로 의복을 여미는 유형으로 버튼의 모양에 따라 일반형, 싸개형, 매듭형 등이 있다.

단추의 기원은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시대 이전부터이며¹⁰⁾ 가장 오래된 단추는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뼈나 청동으로 된 구멍이 뚫린 원반모양으로 1865년 Danish peat bog에서 발견되었다¹¹⁾.

유럽에서 단추가 의복을 여미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14세기 이후 남자복식에서이다. 십자군

원정의 영향으로 군복이 발달하면서 갑옷 안에 입는 것으로 인체에 꼭 맞는 입체구성의 의복이 개발되어 상체를 효과적으로 조이기 위해서 단추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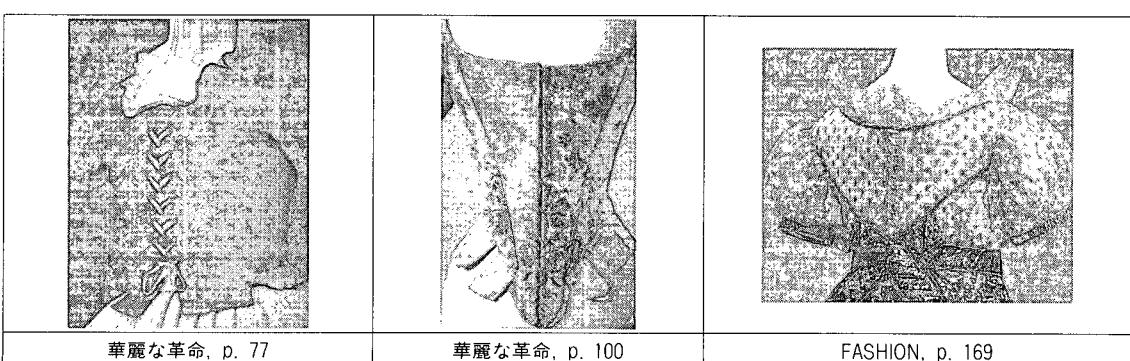
여자복식에서는 18세기 로코코시대 말기의 남자 코트에서 유래된 르멩코트 가운에 더블의 단추 여밈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은 19세기에 여자외투로 발전하여 상의에 단추 여밈이 사용되었다.

단추는 의복을 여미는 실용적 기능 외에 장식적 기능도 있으며 또 값비싼 단추는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교복이나 제복에서는 계급이나 신분, 소속을 상징하는 기능도 있었다.

동양의복에서는 의복의 품이 비교적 넉넉하고 여밈 또한 깊숙해서 대부분 고름과 끈 등으로 매었기 때문에 일반 형태의 단추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개화기 이후 양복의 도입과 더불어 단추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布나 幢으로 매듭의 형태를 만들고 끈고리를 만들어 여미는 매듭형의 단추는 통일신라시대 단령의 전래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여겨지며 국내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의복에 매듭단추가 처음 보인다¹²⁾.

1) 일반형

동양의복에서는 원삼, 전복, 마고자, 조끼 등 좌우 대칭형의 짓 모양에 많이 보인다. 단추의 재료는 금폐, 옥, 은, 호박, 밀화 등으로 천연소재를 주로 사용했으며 형태는 천도형, 네모형, 타원형, 꽃잎형



<그림 5> 벨트형 여밈 중 끈형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단추 위에는 복자, 박쥐, 이화꽃잎, 매화, 국화 문양 등을 자수로 장식하기도 했다.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화된 의복인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웃옷으로 깃과 고름이 없으며 보통 두개 정도의 단추를 다는데 남성용은 오른쪽에 달아 왼쪽의 단추 고리에 여미가 되어 있고 여자는 반대이다¹³⁾. 조끼는 갑오경장(1894년) 이후 양복이 들어오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착용한 것으로 대부분 다섯 개 정도의 단추를 달았다.

서양의복에서는 금, 은, 황동, 백합으로 정교하게 세공하여 만든 것, 금박을 입힌 것, 유리세공 한 것, 그 외 보석과 준보석을 단추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단추의 크기는 약 1~2cm의 작은 것에서부터 6~7cm의 큰 것도 있으며¹⁴⁾, 18세기 남자의 앞트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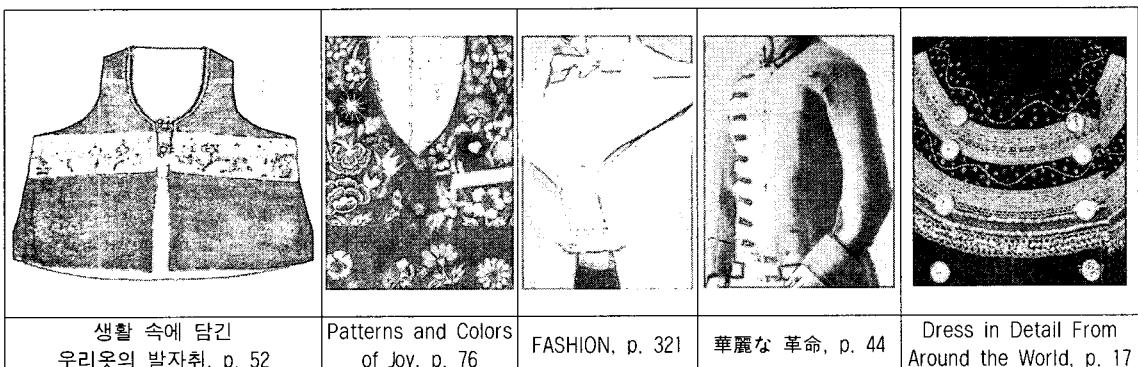
는 값비싼 단추를 달아 당시의 사치스러운 공예기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세기 초 처음으로 단추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대량생산으로 단추가 보급되자 거의 모든 복식에 단추 여밈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코트에는 6~8개 정도의 단추가 달리게 되었다. <그림 6>은 버튼형 여밈 중 일반형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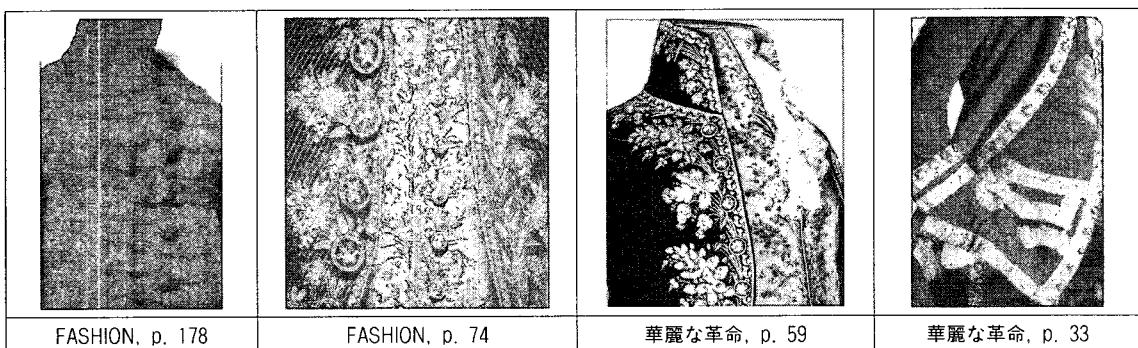
2) 싸개형

서양의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나무에 벨벳이나 걸감과 같은 천으로 싸서 만든 것, 금사와 은사를 꼬아서 써운 것 등이 있다.

주로 의례적인 의복에 장식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해 앞단에 촘촘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7>은 버튼형 여밈 중 싸개형의 예이다.



<그림 6> 버튼형 여밈 중 일반형



<그림 7> 버튼형 여밈 중 싸개형

3) 매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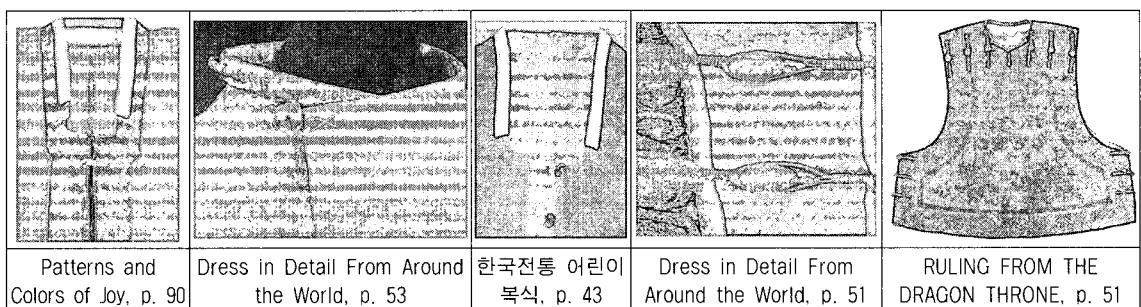
매듭형은 동양의복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국내 최초의 매듭형 여밈은 고려후기 예복포로 추정되는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 중 紫衣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시기인 통일신라시대 단령의 전래와 함께 국내에서도 매듭 단추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복식으로 추정되는 유물에서도 매듭단추는 많이 발견된다¹⁵⁾. 그리고 옷깃을 여미기 위한 단추로 사용된 것은 아니더라도 의복에 매듭을 사용하여 장식한 흔적은 고구려 고분 벽화 및 백제와 신라의 금관, 귀고리, 허리띠 등의 장신구에서도 찾을 수 있으므로 의복에 장식적인 기능과 실용적인 기능으로 매듭이 사용된 것은 훨씬 이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매듭형 단추는 조선시대 이후 의복에 비교적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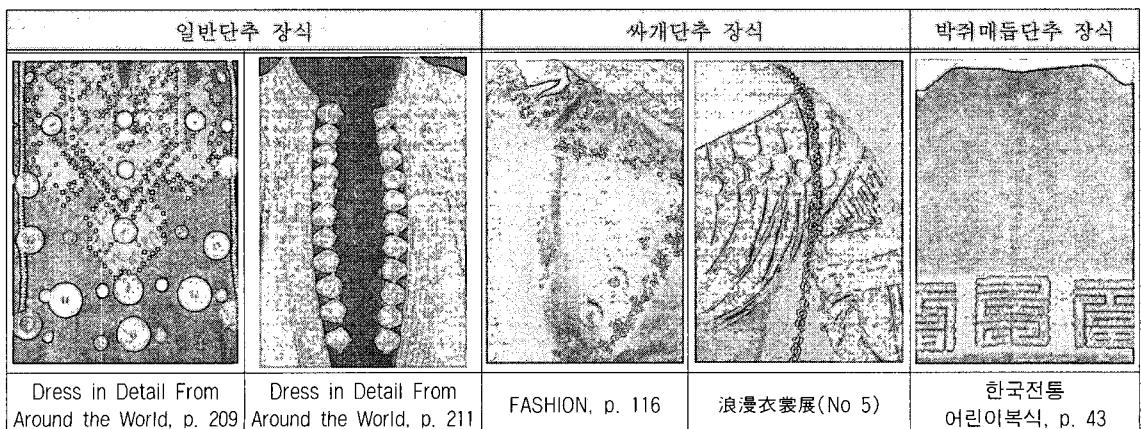
이 사용되었는데 관리 등의 공복인 단령의 것과 떼었다 붙였다하는 철릭의 소매, 그리고 여름철 의복인 적삼 등에서 볼 수 있다.

그 외 일반 단추와 매듭 끈으로 여미지는 형태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에서 모두 볼 수 있으며, 주로 금속단추와 실끈 등의 조합으로 강한 장식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림 8>은 버튼형 여밈 중 매듭형의 예이다.

그리고 버튼이 옷을 여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의복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도 있다. 서양의복에서는 단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달아서 장식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1790년대 코트의 앞여밈의 경우 목둘레선에서 허리선까지 혹은 단까지 춤춤하게 단추를 달고 단추구멍을 수평방향으로 내어 매우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의 의복에서는 천 조각으로 매듭을 만들어 어린아이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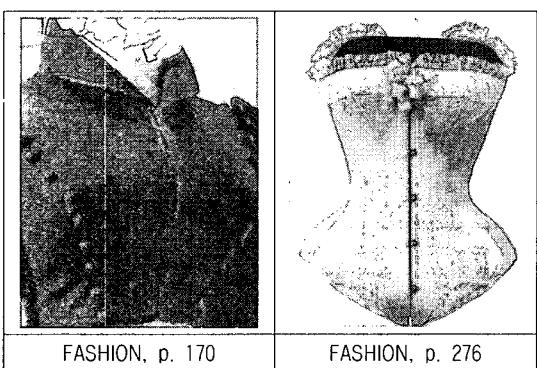
<그림 8> 버튼형 여밈 중 매듭형



<그림 9> 장식형 단추

복의 깃 둘레, 트임 부위 등에 부착하여 장식 및 트임 방지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박쥐매듭¹⁶⁾ 또는 박쥐단추¹⁷⁾라고 했다. <그림 9>는 여러 형태의 단추들이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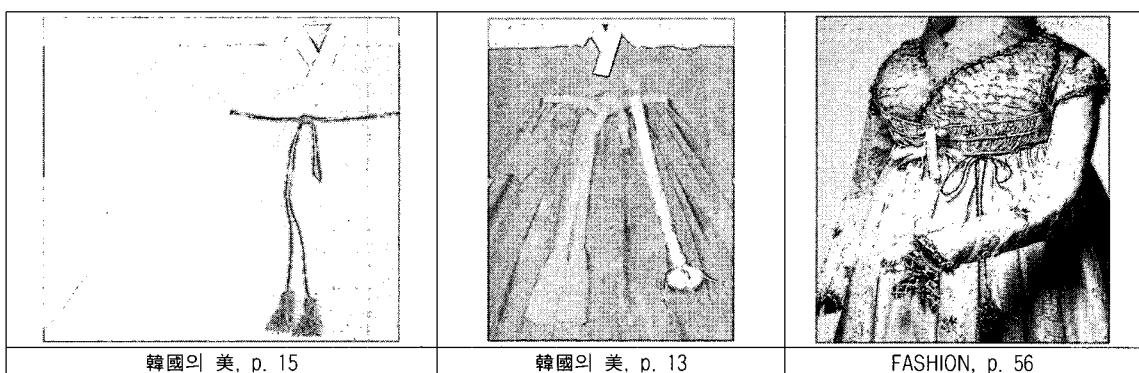
그 외 19세기에는 고리(혹 & 아이) 등의 금속소재의 걸고리형태의 여밈방법도 보인다. <그림 10>은 1815년경 승마 쟈켓과 1880년대의 코르셋의 앞 중심을 걸고리로 여민 형태의 예이다.



<그림 10> 걸고리형

4. 혼합형

혼합형은 의복을 착용한 후 옷을 여미기 위하여 2~3개의 여밈방법을 함께 사용한 유형이다. 리본형과 벨트형, 리본형과 버튼형, 벨트형과 버튼형, 리본형과 벨트형과 버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리본형 + 벨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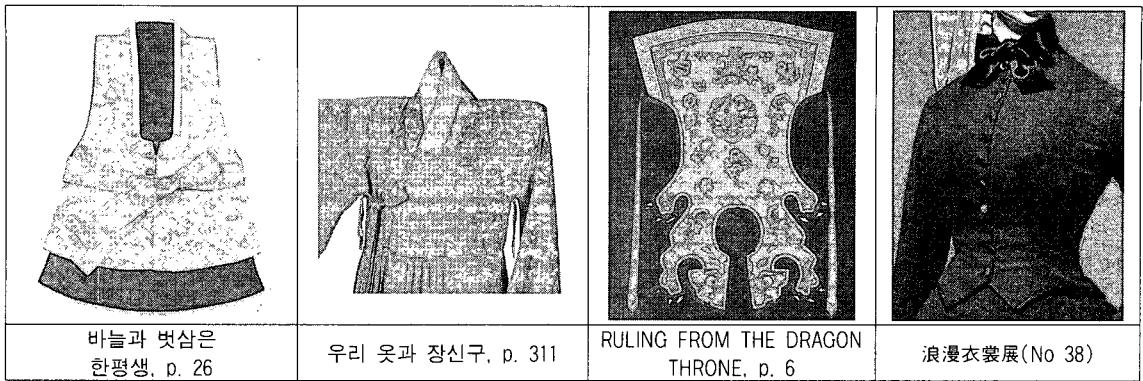
1) 리본형+벨트형

리본과 벨트가 혼합된 유형은 동양의 복의 곤룡포, 도포, 철릭, 대창의 등 남자 포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서 리본형의 고름과 함께 사용한 벨트형의 대는 옷을 여미는 실용적인 역할보다는 비교적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즉 고름과 함께 사용된 대는 의복의 색상과 대조되는 강렬한 색상을 사용했으며 고름이 두드려져 보일 정도로 크기가 크면 이것과 함께 사용하는 대는 비교적 가는 끈형이 많다. 특히 사대부들의 편복포 종류인 도포, 철릭, 대창의 등에 사용한 대는 실을 꼬아서 만든 세조대로서 양반들의 고상한 품위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장식성이 강하다.

서양의 복에 사용한 리본은 순수하게 여밈의 목적보다는 장식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다른 여밈수단 위에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1>은 리본형과 벨트형이 혼합된 여밈의 예이다.

2) 리본형+버튼형

한국복식 중 18세기 이황의 묘에서 출토된 칠보운문단 철릭의 경우는 리본형의 고름과 버튼형의 매듭단추가 혼합되어 사용되었는데 왼쪽 걸자락에 숫단추, 오른쪽 안자락 허리주름선 위에 암단추가 붙어 있다¹⁸⁾. 그 외 배자나 조끼와 같이 깃모양이 좌우 대칭되는 대칭형 의복에서도 이러한 유형을 볼 수 있다.



〈그림 12〉 리본형 + 버튼형

서양의복에서는 단추가 의복을 여미는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식적인 목적으로 리본을 다시 부착하기도 하였다. 〈그림 12〉은 리본형과 버튼형이 혼합된 여밈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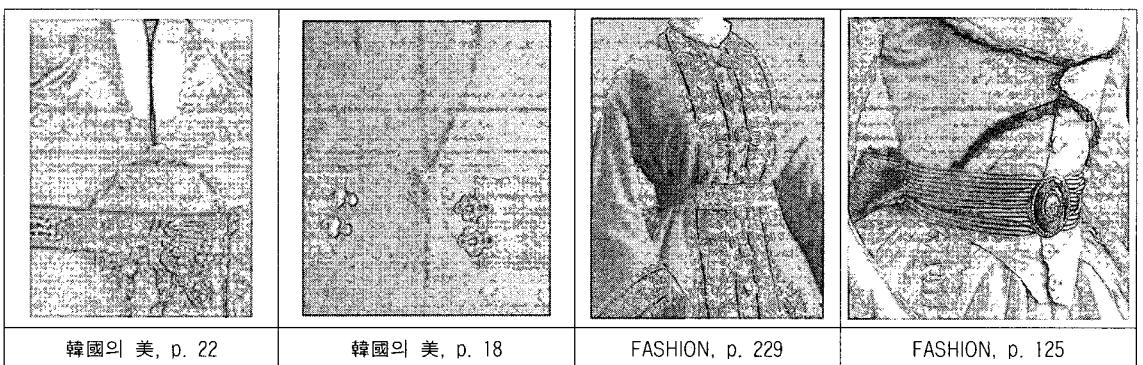
3) 벨트형+버튼형

동양의복 중 원삼, 적의, 단령, 전복 등의 의례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버튼형의 단추와 함께 사용하는 벨트형의 대는 옷깃을 여미는 실용적인 기능 보다는 자수나 금박을 가하고 크기 또한 비교적 넓고 길어서 장식적인 기능이 더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단추와 함께 사용한 대가 장식성이 강하여 두드러져 보이면 함께 사용한 단추는 비교적 작은 크기로 실제적으로 옷을 여미는 역할을 하였다.

서양의복에서는 단추나 고리 등의 여밈수단 위에 벨트를 등의 벨트가 덧붙여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동양의복에 사용된 대와 마찬가지로 장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림 13〉은 벨트형과 버튼형이 혼합된 여밈의 예이다.

4) 리본형+벨트형+버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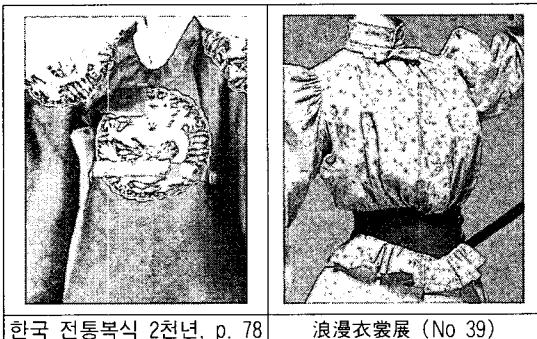
혼합형 중 가장 복잡한 유형으로 리본, 벨트, 버튼의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여밈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조선시대 국왕의 상복인 곤룡포 및 백관들의 공복 및 상복으로 입혀진 단령에서 이러한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매듭단추와 고름, 그리고 대대를 함께 사용했다. 여기에 사용된 대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신분 표식 및 강한 장식적인 욕구를 표현한



〈그림 13〉 벨트형 + 버튼형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의복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여밈을 볼 수 있는데 다만 동양과 달리 입체적인 인체의 굴곡을 강조하기 위하여 벨트를 부착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4>는 리본형과 벨트형, 그리고 버튼형이 혼합된 여밈의 예이다.



<그림 14> 리본형 + 벨트형 + 버튼형

III. 여밈의 조형성 분석

18~19세기 동·서양의복에 나타난 여밈을 통하여 의복의 여밈방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복의 외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외재미로는 기능성, 심미성을 들 수 있고, 의복의 여밈수단 내면에 함축되어 있는 내재미로는 사상성, 정숙성, 성적매력성, 신분표식성 등을 들 수 있다.

1. 외재미

1) 기능성

기본적으로 의복에서 여밈은 옷을 여미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대개 서양의복은 인체에 밀착되도록 조여 입는 반면 동양의복은 어깨에 걸쳐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서양의복이 조여 입는 옷이라면 동양의복은 걸쳐 입는 옷이다. 따라서 서양의복의 경우 여성의 가슴에서 허리까지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인체에 꽉 맞는 여밈방법인 끈형, 버튼형 등을 주로 사용하면서 기능성을 상당히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양의복은 품이 크고 관찰한 형태로 단지 걸쳐 놓기만 하

여도 앞이 벌어지므로 앞이 벌어지지 않게 의복의 여밈 또한 여기에 적합한 대, 고름 등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심미성

동·서양의복 모두 여밈은 단순히 옷을 여미는 기능적인 목적 외에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심미적인 효과도 상당히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양의복에서는 여밈 형태가 옷깃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좌우의 깃 모양이 대칭되는 대금형 의복에는 대칭형태를 이루는 리본형의 여밈을 부착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좌우의 깃 모양이 비대칭되는 의복에는 비대칭형태를 이루는 고름을 부착하여 의복의 형태와 여밈의 형태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복과 같은 의례복의 경우는 단순히 옷깃을 여미는 기능을 하는 버클과 고름 외에도 의복의 색상과 강렬하게 대조되는 색상으로 대를 함께 사용하여 장식성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한편 서양의복에서는 단순히 옷을 여미는 기능 외에 눈에 띠는 단추를 장식용도로 많이 사용했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17~18세기에 단추의 장식적인 역할이 결정을 이루는데, 이 시대에는 금, 은,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금, 은사로 단추 구멍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리고 버튼형+리본형, 버튼형+벨트형의 혼합형 여밈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버튼으로 옷을 충분히 여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본이나 벨트를 다시 부착한 것은 장식적인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내재미

1) 사상성

의복의 여밈 형태를 통하여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동양의복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1) 음양사상

음양사상은 모든 우주 만물을 음과 양으로 구분

하여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동양의복의 여밈에서도 이러한 음양사상은 엿볼 수 있다.

동양의복에는 좌우의 것 모양이 동일한 대금형 의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좌우의 길이가 비대칭인 고름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묶었을 때 가지런히 하기 위한 기능성과 장식성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이러한 비대칭 고름의 여밈에는 음양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름은 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길이가 긴 고름과 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길이가 짧은 고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의 개념인 좌측, 즉 의복을 입었을 때 왼쪽방향에 양의 개념인 길이가 긴 고름을, 음의 개념인 우측, 즉 의복을 입었을 때 오른쪽 방향에 음의 개념인 길이가 짧은 고름을 부착하여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사각형의 천을 재단하여 만든 고름은 착장을 통해 곡선의 고름 코를 만들어 냄으로써 역시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즉 음의 개념인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고름을 착장함으로 인해 양의 개념인 곡선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음과 양의 조화로 볼 수 있다.

(2) 주술사상

예로부터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심리적 위안 등을 얻기 위하여 행한 주술적인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아기 옷에는 무병장수, 부귀총명, 자손번창 등을 기원하는 소망을 곳곳에 표현했다. 신생아의 배냇저고리에는 고름 대신 길게 실끈을 만들어 달아서 긴 길이 만큼이나 무병장수할 것을 기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밈수단에 주술적인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숙성

동·서양의복은 모두 옷을 여밀 때 한 가지 여밈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두세개의 여밈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여밈방법만으로는 신체노출을 충분히 막

을 수 없어서 두세개의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사회 규범에 준하는 정숙성의 논리에 근거하여 혼합형의 여밈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의복의 경우 저고리 겉고름 외에 속에서 다시 한 번 매어주는 속고름도 있으며, 포류에 고름과 대, 고름과 버튼, 대와 버튼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동양의복에서 이러한 혼합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사회 전반에 만연된 유교사상, 내외법 등 정숙성의 이미지를 의복에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양의복의 경우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개방적인 속성을 지니면서도 목에서부터 완전히 여미는 착장방식, 즉 앞 목에서부터 헴라인까지 트여진 앞트임 의복의 경우에 목까지 꼭 채워서 완전히 은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숙성을 의도적이고 과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성적매력성

서양의복에서 인체를 조이는 주된 여밈 장치로 사용한 끈 여밈은 다른 여밈보다 성적매력성의 표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이 인체 밀착형인 입체적 구조되면서 18세기 여성들의 가는 허리와 풍부한 앞가슴을 돋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여밈방법이 끈이다. 그리고 버튼으로 의복의 옷을 충분히 여몄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적 두꺼운 벨트를 부착하거나 가는 목을 강조하기 위해 목둘레에 리본을 매어 주는 경우도 성적매력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그마한 단추가 촘촘하게 달려 있는 몸에 꼭 끼는 상의의 경우 눈에 띠는 단추를 통해 시선을 앞가슴 쪽으로 유도하므로 성적매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완전히 채우지 않은 단추나 쉽게 풀어질 것 같은 리본은 보는 이로 하여금 풀고 싶다는 욕구를 유발하므로 착장방식에 의한 성적매력성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양의복에 주로 사용된 비대칭 길이의 고름도 묘한 성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고름은 묶어져 있어 성적 열정을 봉쇄하기도 하지만 쉽

게 풀 수 있어 속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성적매력성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신분표식성

동양의복에서는 벨트형의 대가 당시 인물들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의복의 종류에 따라 허리에 두르는 대의 종류도 세조대, 광다회, 동다회 등으로 달랐으며 신분에 따라 홍색, 청색, 녹색 등으로 색상이 달랐다¹⁹⁾. 그 외 원삼 등 예복에 사용하는 대는 대부분 금박을 하는데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문양이 달랐다.

서양의복에서는 의복에 부착하는 단추의 디자인이나 재질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 소속 등을 표시하였다. 18세기 이전에는 보석단추를 달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근대에는 유명인사의 얼굴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념하는 주제의 디자인이 보이기도 한다.

IV. 결론

18~19세기 동·서양의복에 나타난 여밈의 유형과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의 여밈은 형태에 따라 크게 리본형, 벨트형, 버튼형, 혼합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리본형은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 끈으로써 옷을 여미는 유형으로 리본을 묶은 후의 모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양의복에는 대칭형과 비대칭형이 모두 나타나는 가운데 비대칭형 즉 고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양의복에는 주로 대칭형 즉 리본만 보이는데, 이는 단지 여밈수단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프릴, 레이스 등과 함께 사용되어 장식미를 강조하였다.

둘째, 벨트형은 의복과 분리된 별도의 끈이나 대가 옷을 여밀 때 사용되는 여밈으로 대형과 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형은 동양의 의례복에서 특히 발달했으며 끈형은 몸에 꼭 끼는 서양의복에서 가는 허리와 풍만한 앞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버튼형은 기본적인 단추와 단추 구멍 및 고리로 옷을 여미는 방법이며, 버튼의 모양에 따라 일반형, 싸개형, 매듭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버튼형은 서양의복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며 일반 단추 외에도 친으로 싸거나 금사와 은사를 꼬아서 씌운 싸개형이 크게 발달했다. 동양의복에서는 원삼, 전복, 조끼 등 좌우 대칭형의 깃 모양을 가진 의복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반형 외에도 매듭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네째, 혼합형은 리본형, 벨트형, 버튼형 등의 유형들이 서로 조합되어 사용된 여밈으로 리본형+벨트형, 리본형+버튼형, 벨트형+버튼형, 리본형+벨트형+버튼형 등이 있다. 서양에서는 벨트형+버튼형, 동양에서는 리본형+벨트형의 비중이 높으며, 단지 옷을 여미는 수단 외에 디자인 요소로서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동양의복에서는 리본, 버튼과 함께 사용한 대가. 서양의복에서는 버튼과 함께 사용된 리본과 버클이 장식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서양에서는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할 목적으로 벨트형을 포함한 혼합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동·서양의 여밈 형태를 통해 의복의 외형에서 발견할 수 외재미로서는 기능성, 심미성을 들 수 있고, 여밈수단의 내면에 함축되어 있는 내재미로서는 사상성, 정숙성, 성적매력성, 신분표식성 등을 들 수 있다. 즉 의복의 여밈은 옷을 여미는 기능적인 역할 외에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심미성의 기능도 가지며, 특히 동양에서는 대형을, 서양에서는 버튼형을 장식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동양의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으로 사상성을 들 수 있는데 비대칭 질이에서 볼 수 있는 음과 양의 조화, 무병장수와 부귀총명 등을 소망하는 주술성, 신체노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정숙성, 정숙성과 반대되는 성적매력성, 그리고 신분, 권력, 소속 등을 상징하는 신분표식성 등의 내재미도 함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동·서양의복에 나타난 여밈의 유형과 조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시기를 18~19세기로 한정하였으므로 서양의복의 여밈 유형 중 19세기 이후

발달한 여밈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허지영 (1997). 복식의 여밈에 관한 연구-서양복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John E. Vollmer (2002). *Ruling from the dragon throne -costume the qing dynasty(1644-1911)-*. Toronto: 10 the speed press.
Rosemary Crill, Jennifer Wearden and Verity Wilson (2002). *Dress in detail from around the world*. London: V&A.
- 京都服飾文化研究財團 (1989). 華麗な革命. 京都: 日本寫眞印刷株式會社.
- 京都服飾文化研究財團 (1989). 浪漫衣裳展. 京都: 日本寫眞印刷株式會社.
-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Fashion*. Italy: Taschen.
- 국립대구박물관 (2002). 한국전통복식 2천년. 서울: 통천문화사.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 국립민속박물관 (2003). 생활속에 담긴 우리 옷의 발자취. 서울: 신유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1988). 韓國의 美-衣裳・裝身具・幘-. 서울: 통천문화사.
-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服飾類名品圖錄.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0). 한국 전통 어린이 복식.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3)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73.
- 4) 이기문 (1983). *훈동자화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40.
- 5) 이경자 (2003). 우리 옷의 전통양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133-134.
- 6) 關根真隆 (1974).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pp. 124-127. p. 130.
- 7)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39.
- 8) 이경자 (2003). 앞 책, p. 141.
- 9) Anderson J. Black & Madge Garland (1981). *A history of fashion*. London: Corbis publishing. p. 66.
- 10) 학원세계백과대사전 (1976). vol. 9. 서울: 학원출판공사. p. 333.
- 11) Vernar Moulon (1975). Button. *Encyclopedia Americana*, 2. p. 77.
- 12) 이경자 (2003). 앞 책, p. 119.
- 유희경, 김문자 (1999).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64.
- 13) 김영숙 (2002).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영왕 복식중심-. 서울: 신유출판사. p. 241.
- 14) 정홍숙 (1997). 앞 책, p. 257.
- 15) 關根真隆 (1974). 앞 책, p. 113. pp. 116-121.
- 16) 김지영, 김문진(2000). 오방색실과 천으로 잇는 천연 세상 규방공예. 서울: 컬처라인. pp. 92-93.
- 17) 백영자, 최해율 (1999). *한국의 전통 복제*. 서울: 교학연구사. p. 37.
- 18)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앞 책, pp. 311-312.
- 19) 세조대 : 도포, 전복, 담호 등 통상 예복 위에 착용. 광다희 : 문무관이 침리 위에 착용하는 실로 짠 두껍고 넓은 떠. 품위에 따라 홍색, 청색, 옥색, 녹색의 구분이 있다.
동다희 : 관이나 반가의 사서인이 통상예복으로 착용한 실로 짠 납작하고 좁은 따로서 품위에 따라 홍색, 청색의 구분이 있다.